

## Moody's, 브라질 신용등급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

-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유일하게 브라질을 투자등급 이하(Ba1)로 두고 있던 Moody's사가 지난 9월 22일 브라질에 대한 국별평가등급을 투자적격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Baa3로 상향조정하고 향후 등급 전망을 '긍정적(positive)'로 제시
  - 나머지 2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(S&P)사와 Fitch사는 이미 브라질에 대해 지난해 4월과 5월에 각각 「투자적격국」으로 기 분류
- Moody's사가 브라질의 등급을 상향조정한 배경에는 작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브라질에 대한 충격이 최소한에 그쳤고, 위기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의 대응능력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설명
  - 아울러 브라질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재정상태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라질의 전체적인 경제 상태는 투자적격등급인 Baa 등급을 받은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나은 편이라고 설명
- 실제 브라질은 '09년 2/4분기 중에 '08년 4/4분기부터 이어진 GDP 마이너스 성장을 탈출하여 1.9%의 성장을 기록하였고, 외환보유액도 2,2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여 선진국의 금융파탄이 잇따르는 가운데에서 브라질의 금융시스템은 큰 무리 없이 작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벗어난 국가의 하나로 자리매김 함
- 그러나, Moody's는 등급의 상향조정과 함께 브라질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주로 아래의 공공재정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지적

- 전 세계 국가 공통적인 사항으로, 경제 불황 해결을 위한 대규모의 공적 자금투입에 의한 공공채무의 팽창과 재정적자의 확대
  - 브라질 국채의 상환기간이 짧고, 전체적인 자금흐름의 계획이 유연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
  - GDP대비 공적채무의 비율이 최근 3개월간 6.3%가 증가하여 7월말 현재 44.1%에 달하고 있으며 동시에 primary 재정흑자는 GDP 대비 1.76%까지 떨어지고 있어 목표치인 2.5%이하이며, 2001년 이후 최악의 기록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스의 브라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, 추가적인 상향조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으며,
- 실제 브라질은 러시아, 멕시코 등의 신흥국보다 등급이 낮은 상황이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 스프레드는 이들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브라질이 더 저위험국이라고 인식되고 있음
- 이러한 Moody's의 등급상향조정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브라질은 더욱 양호한 조건을 갖추게 되어 브라질 정부나 기업이 기채하는 유로본드의 금리 코스트는 더욱 인하되어 채권의 스프레드도 개선될 전망
- 한편 브라질 헤알화의 강세는 해외의 개인투자자로부터 브라질 국내의 금융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증대시켜 외자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동시에 이는 더욱 헤알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<사용파울루 사무소 제공>